불교 혁파에도 끊이지 않은 인간애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㊱ 용헌 이원

조선전기 관료 문인 이원(李原, 1368~1429)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공헌한 인물이다. 그는 다수의 승려들과 교유하였으며 수행승의 시축에 화답시를 남겼으니 이는 척불(斥佛)이 소명처럼 인식된 시기에 유불교유가 이어진 정황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의 자(字)는 차산(次山)이며, 호(號)는 용헌(容軒)이다. 저서로는 〈용헌집〉과 〈철성연방집(鐵城聯芳集)〉을 남겼다.

이원의 집안은 3대에 걸쳐 번영을 누린 가문이다. 특히 조부 이암(李 Ⅴ1297~1364)은 재상을 역임한 인물로 동국의 조자앙(趙子昻)이라 칭송될 만큼 예서와 초서에 능했으며 묵죽을 잘 그렸다. 그의 부친 또한 밀직제학을 역임하는 등 공민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가풍(家風)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원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아비를 여이고 매부 권근(權近)의 문하에서 공부했는데, 날로 진취함을 드러내자 "우리 장인이 죽지 않으셨다"고 하였다.

《국조인물고》에 의하면 그가 진사과에 합격한 것은 15세이며, 1385년 문과에 급제했다. 당시 주시관(主試官)이었던 정몽주가 그를 보고 "문경공(이원의 아버지)의 재주와 덕이 크게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런 아들이 있으니 하늘이 보답하여 베풀어 주심이 참으로 징험 있구나"라고 한 점을 보아 그의 부친 또한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던 듯하다.

그는 1388년 사복시승(司僕侍承)에 제수된 이후 공조(工曹), 예조(禮曹)의 좌랑(佐郞)과 병조정랑(兵曹正郞)에 임명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능력을 인정받아 사헌부 지평(持平)과 시사(侍史)를 맡았다. 이뿐 아니라 정종(定宗) 때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올랐다가 태종이 즉위한 후에는 그에게 공신녹권(功臣錄券)이 하사되는 등 순탄한 환로(宦路)를 달렸고, 세종 때에는 우의정에 발탁되는 은택을 입었다. 특히 그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그의 아름다운 수염을 본 황제가 "황염(黃髯: 황금색 구레나룻)의 재상은 뒤에 다시 와야 한다"고 한 사실은 《국조인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삶에도 기복이 있었다. 조선 건국 초 2차 왕자의 난에서 방원을 도와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책록(策錄)되었고, 철성군(鐵城君)에 봉해졌던 그였지만 많은 노비를 불법으로 차지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은 그의 몰락을 예고했다. 결국 공신녹권이 박탈되고 여산(礪山)으로 유배되어 생을 마쳤으니 당시 신 · 구파의 정치적 갈등뿐 아니라 말년이 순탄치 않았던 그의 삶의 일단을 드러낸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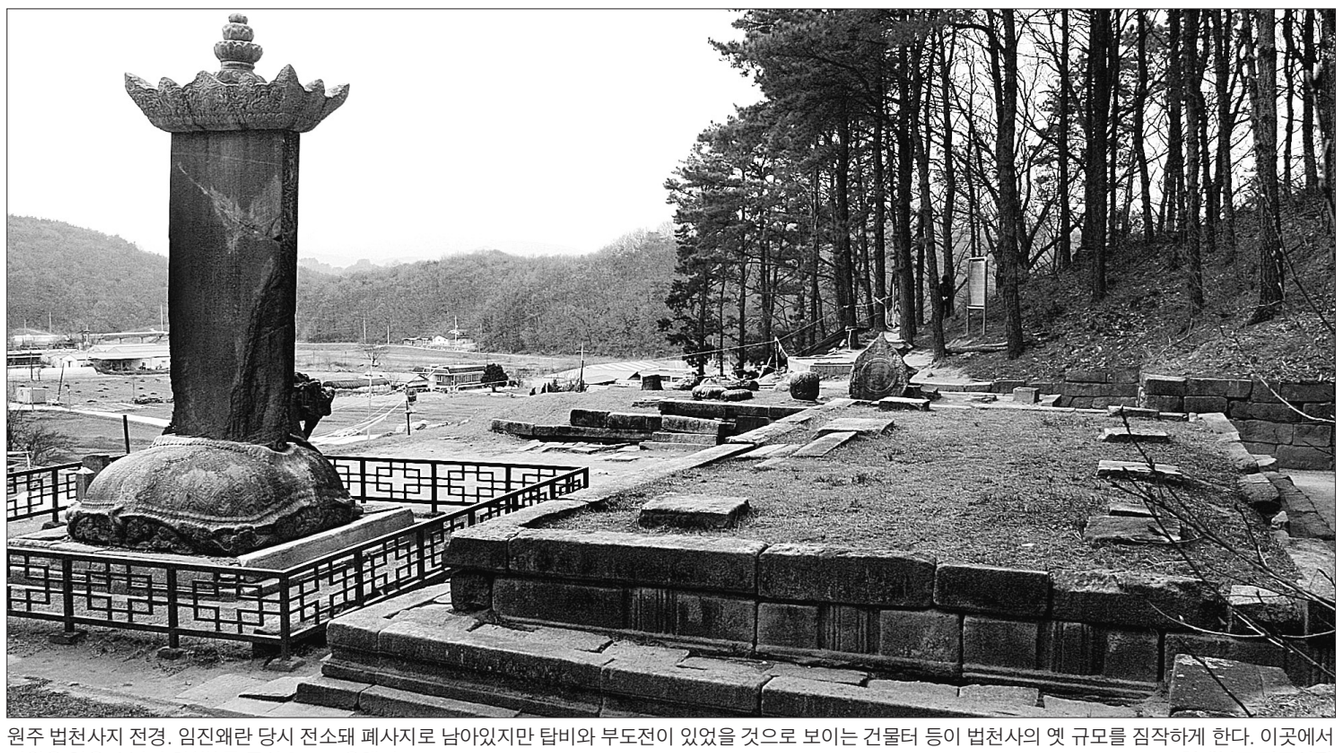
무엇보다 정무에 관대하여 경장(更張)을 좋아하지 않고 대체(大體)를 지켰던 그를 상대적으로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았다.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무리들이 있을 때마다 태종은 친히 그의 누명을 벗겨 주었지만 시기하는 무리들의 참언은 계속되었다. 결국 그가 참언을 견디지 못하고 여산으로 귀양 가는 정도에 그친 것은 세종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철성(鐵城: 이원)이 있으면 반드시 잘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은 그를 해배시켜 정승에 임명하고자 했지만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 번번이 저지되었다. 따라서 그가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한편 도량이 넓고 충직했던 그의 성품은 《국조인물고》에 자세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은 도량이 넓고 성품이 충직한데다 바른 학문을 더하였으므로, 그 논의에서 나타내고 사업에서 조처하는 것이 대단히 볼만하였다. 평생 남과 말할 때에 속이고 꾸민 적이 없고 또 모가 나서 스스로 남과 다른 체하지 않았으나, 큰일에 임하여 결단하게 되면 확고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이 산악(山岳)처럼 우뚝하였다. 전주(銓注)를 맡은 10여 년 동안에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자를 선발하되 사심으로 관직을 주거나 빼앗지 않았으므로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참으로 태평재상(太平宰相)이었다.

그는 강직했고 원칙을 준수했다. 평생 남을 속이지 않았으니 선비의 기상이 준절하고, 평탄한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참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할 시절의 재상이었지만 세종의 유신 정치를 돕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한편 그가 승려들과 교유한 자취는 《용헌집》에서 확인된다. 그가 교유했거나 유람했던 사찰은 평양의 망일사와 보흥사, 강원도의 법천사, 흥천사(興天寺), 장단 영통사, 회암사(檜巖寺), 인왕사 등이다. 또한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의 이름도 일운 스님과 인왕사의 장로, 염 스님 등 다수의 인물이 거론된다. 특히 깊이 교유했던 일운 스님과의 우정은 〈기일운상인(寄一雲上人)〉에서 드러난다.



원주 법천사지 전경. 임진왜란 당시 전소돼 폐사지로 남아있지만 탑비와 부도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 등이 법천사의 옛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이곳에서 이원은 일운 스님과 차(茶)를 중심으로 교유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선건국 공헌하며 승승장구
반대파 참언에 말년 유배생활
평양 · 강원도 사찰 유람하며
신분 떠나 승려들과 정 나눠

법천사는 양암 동쪽에 있는데
(法泉寺在仰巖東)
치악산은 드높이 반쯤 허공에 걸렸네
(雉岳山高倚半空)
어느 날 한가로이 시골집에 돌아가서
(何日閒尋田舍去)
분향하고 마주하여 솔바람 소리를 들을까
(焚香相對聽松風)

법천사는 강원도 원주지역에 있는 사찰이다. 신라 성덕왕 때에 창건, 고려 문종 때 지광국사(智光國師)가 머물며 큰 가람을 형성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에 전소되어 절터만 남았다. 지금도 지광국사현묘탑비와 당간지주가 남아 있어 이 절의 위용을 짐작게 한다.

바로 이원이 법천사의 일운 스님과 사귀었던 것이다. 일운 스님은 흥천사(興天寺)의 사리탑 중창을 기념하는 경찬법회를 주관했던 고승이다. 이원이 "어느 날 한가로이 시골집에 돌아가서/ 분향하고 마주하여 솔바람 소리를 들을까"라고 하였으니 솔바람 소리는 바로 찻물이 끓는 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교유는 차로 더욱 돈독해졌음을 드러낸다. 한편 인왕사 장로 스님의 시권에 써준 그의 시 〈제인왕장로시권(題仁王長老詩卷)〉에는 이런 내용이 보인다.

봄이 되니 한가한 날 많아서(乘春多暇日)
앞길 물어 절간을 찾아 가네(尋寺問前程)
소나무 그림자에 누대가 고요하고
(松影樓臺靜)
강물 소리에 절간이 맑구나(江聲院落淸)
이제부터 결사를 함께하여(從今同結社)
여기에서 불법을 배우리라(坐此學無生)
관직을 가벼이 여겨서가 아니라(不是輕軒冕)
물외의 정을 금할 수 없기 때문이네
(難禁物外情)

그가 인왕사의 장로 스님의 시권에 이 시를 쓸 무렵에는 척불(斥佛)의 거센 물결이 일기 전인 듯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결사를 함께하여/ 여기에서 불법을 배우리라"고 했던 것이다. 불법을 배우고 용맹 정진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결사(結社)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스님과의 교유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결사만 할 수 있다면 벼슬길의 부침을 다 버릴 수 있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는 바로 〈장단 영통사의 시에 차운하여(次長湍靈通寺韻)〉란 시에서이다.

한가로이 절을 향해 도림을 찾아가니
(閒向招提訪道林)
시내 따라 오솔길이 솔숲으로 나 있네
(緣溪小逕出松陰)
오관산은 바람과 안개 띤 채 예스럽고
(五冠山擁風烟古)
대각국사비 기울었으니 세월이 오래됐구나
(大覺碑橫歲月深)
삼보(三寶)의 마음은 불경 계율 교화이고
(寶字念心經律化)
노승의 설법은 과거 미래 현재라네
(老僧讀法古來今)
만약에 결사하여 이곳에 눕는다면
(若爲結社亭中臥)
벼슬길의 부침도 다 버릴 수 있다네
(一任名塗昇與沈)

그가 찾아간 장단의 영통사는 오관산에 위치한 절이다. 이 절에 대각국사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대각국사가 수행했던 절인 듯하다. 그러나 그가 영통사를 찾아갔을 무렵에는 이미 대각국사비가 기울어져 있었던 듯하니 세월은 이처럼 무상한 법이다.

한편 노승의 설법은 삼세일여(三世一如)의 법도가 명백하니 그가 영통사를 찾은 이치도 이를 깨치기 위함이었던가. 그러기에 "만약에 결사하여 이곳에 눕는다면/ 벼슬길의 부침(浮沈)도 다 버릴 수 있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리라. 아무튼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그도 왕조의 변화를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고려의 유신으로 건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했던 그였으니 말이다. 왕자의 난에 방원의 정치적 노선을 따랐던 그였고 세종 때에는 높은 벼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불교 혁파 상소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정치적 명분은 분명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유불교유는 이어졌으니 이는 〈기백운산염상인(寄白雲山焰上人)〉에서 확인된다.

몇 자 편지, 아득히 속세에 전해져서
(隻字遙傳落塵ø)
스님께서 백운산에 계신 것을 알았네
(知師住錫白雲山)
눈 깊은 계곡 길에 지나는 이 없어서
(雪深溪路無人過)
솔 아래 바위 문은 항상 닫혀 있겠지
(松下巖扉盡日關)

염 스님은 백운산에서 수행한 고승이다. 이들의 교류가 얼마간 뜸했던지 염 스님이 백운산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님이 보낸 편지에서 알았다는 것이다. 백운산은 깊은 산중이다. 한겨울 눈까지 덮였으니 더욱 인적이 드물었을 터다. 그러므로 솔 아래 사립문이 닫혔을 것이란 말에서 염 스님이 선승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무튼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의 격동기를 살았던 이원은 승려들과의 교유에서 무엇을 위안 받았으며 무엇을 소통했던 것일까. 바로 학문적 성향이나 정치, 이념, 가문, 신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따뜻한 인간애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로 이들이 나눈 소통과 배려의 따뜻한 온기는 이 글을 연재하는 내내 가슴을 따뜻하게 한 빛이었다. 그동안 거친 글을 읽어 주신 독자 제위들의 인내심에 경의를 표한다. 〈끝〉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2.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입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 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031-255-0066 | 010-3045-0085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무문관 傳法講主 釋 眞 性